

◎한국 IPG의 활동

- 부산국제영화제 01
- 특별사법경찰 02
- 한국 무역위원회 활동 03
- 한국 IPG 세미나 04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5
- '신 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자금' 06
 - 한국 특허청 '발명의날 60주년 기념행사' 전국 투어 행사를 개최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기업의 매출액
 - 한국이 GII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사무국 메시지

올해도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은 쾌적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트로 한국 지대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2025년 7월 17일,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휴가철 '뽕지순례'는 '특허순례? 특허뽕 찾아 전국으로!'라는 보도자료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중에서 지역과 뽕 명칭이 일치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①튀김소보로→부산 ②돌계뽕→여수 ③돌가마만주→대구

※ 정답은 본지 3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IPG의 활동

| 부산국제영화제

2025년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제30회를 맞이한 올해 영화제는 7개 극장, 31개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되었고, 상영 작품 수는 역대 최대인 328편에 이르렀으며 그 중 일본 작품은 24편이었습니다. 개최 기간 중 방문객 수는 238,697명에 달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맞추어 202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B to B 관객자를 대상으로 한 ACFM (Asian Contents & Film Market) 도 개최되었습니다. 31개국, 289 회사, 113부스가 출전하였고, 방문객 수는 30,006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성대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경쟁 부문 '부산 어워드'를 신설하여 5개 부문, 6개의 트로피를 놓고 겨루게 되었습니다. 후보에는 일본 작품 3편을 포함한 총 14편의 작품이 올랐고 그 중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일본 영화의 주연 3명이 처음으로 '배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JETRO가 운영한 Japan Pavilion

(한국에서 상영되었거나 상영 예정인 일본 영화를 소개하는 공간과 영화 감독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 팬들의 메시지를 담은 공간이 부스에 마련되었습니다.)

JETRO도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화의 전당(야외 광장)에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부스에서는 한국에서 개봉된 일본 영화의 역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 도쿄국제영화제, 신인감독 소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에 대해 소개하여 4,500명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일본 영화는 53편이 소개되어 부스를 찾아주신 분들이 흥미롭게 관람했습니다. 또한 한국 팬들이 일본 영화 감독 메시지에 답변하듯이 포스트잇에 다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ACFM (Asian Contents & Film Market) 네트워킹 라운지에서는 일본 문

화청, 경제산업성, UNIJAPAN, JETRO의 공동 주최로 ‘Japan Networking Day’를 개최했습니다. 550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현장은 다수의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영화 콘텐츠 등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일본술 프로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교환 및 홍보의 장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전당

● 특별사법경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는 일본 특허청과는 다른 조직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식재산처의 협력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은 크게 2개로 나뉘지며, 상표경찰과 기술경찰(특허, 디자인)이 있습니다. 모두 특별사법경찰이며 일반 경찰과는 다른 조직으로써 위조상품 대책과 기술 탈취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마련하는 법제도가 존재하여 지식재산 분야 외에도 철도나 약품 분야 등에 존재합니다.




특별사법경찰 (현재는 지식재산처 소속)

2000년도 초반부터 한국 위조상품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당시, 한국 특허청 내부에 상표경찰을 설치했습니다.

2019년에는 기술탈취 관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허와 디자인을 단속하는 기술 경찰 또한 출범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는 상표경찰 28명, 기술경찰 25명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처 내에서도 다른 부서와 업무 성격이 다르지만 지식재산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현장을 단속하고 기술경찰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 및 증거 압수도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조상품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국 기업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테이크다운(정보 삭제) 등의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이크다운을 하기 위해 MOIP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소속된 약 100여명의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상의 위조상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청사내에 전시 중인 위조상품과 정품 사례

현재 해외 EC사이트 등 온라인 상의 위조상품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특허청에는 특별사법경찰과 완전이 일치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제 3국에서의 예방 활동 및 대책 등을 공동으로 실시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 입니다. 

● 한국 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활동


한국 수출입과 관련해서 세관 대책과는 별개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TC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청구 내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침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반 기업을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 기업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오인 · 손상 · 변경표시, 미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 허위·과장 표시 행위 :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 수출입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장 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재조치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 (2개월씩 2회 연장 가능)에 최종 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 등의 반입 배제 및 폐기처분)
 - 정정광고
 -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지재권)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원산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지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7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 조언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정답은 ②돌게빵→여수 입니다. 최근 20년간('05년~'24년) 제빵 특허출원이 총 3,500여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연간 출원규모는 '05년 57건에서 '24년 416건으로 약 7.3배 늘어났다고 하니, 빵식 시장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도 증가세에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빵을 찾으려 한국 전국을 뱅지순례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한국 IPG 세미나

● '한국에서의 소송 대처 방법, 일본 기업이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제43회 한국 IPG세미나 개최

2025년 6월 12일, JETRO 본부(도쿄)에서 '한국에서의 소송 대처 방법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제43회 한국 IPG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IPG 오오타니 위원장(주식회사 한국 히타치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김진백 한국 변리사의 '지재권을 보유하는 기업의 권리행사(일본 기업의 소송 동향 및 승소 사례)', 아오키 히사노리 일본국 변리사의 '한국의 징벌 배상 대응 전략', 김원 한국 변호사의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 정보 유출 등 대책'에 대한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자 모두와 JETRO서울 오오츠카 부소장에 의한 '패널 토의'가 이루어지며 현장에서는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지재권을 보유하는 기업의 권리행사'에 대한 강연에서는 한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일본 기업이 관계되는 소송 유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징벌 배상 대응 전략'에서는 한국의 제도 도입 배경이 소개되고 최대 5배까지 배상 증액이 가능하다는 현재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액 배상이 인정된 실제 판례 사례도 소개하면서 '고의' 침해 인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증액 배상 청구를 받지 않기 위한 대책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할 때 정보 유출 등 대책'에 대한 강연에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



김원 한국 변호사 강연 장면



패널 토의 장면
(왼쪽에서 김진백 변리사, 아오키 변리사, 김원 변호사, 오오츠카 부소장)

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영업 비밀 유출은 유출 뿐만 아니라 부정 유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의에서는 재판 진행과 관련된 질의와 증액 배상 및 선사용권의 관계, KTC 이용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 세미나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한일 지식재산 제도 비교'를 주제로 제44회 한국IPG 세미나를 개최

2025년 7월 23일에 서울글로벌센터(서울)에서 '한일 지식재산 제도 비교'를 주제로 제44회 한국 IP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국제교육과)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일본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지식재산 관계자 여러분도 참여했습니다. 한국 IPG 오오타니 위원장(주식회사 한국 히타치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동국 IIPTI 국제교육과 과장 인사 후, 특허법인 무한의 천성진 대표 변리사의 '한일 지식재산 제도 비교, 특허·실용신안', 구기완 대표 변리사의 '한일 지식재산 제도 비교, 디자인·상표', 천성진 대표 변리사의 '한일 지식재산 제도 비교, 통계·무역수지'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자 모두와 JETRO 서울 오오츠카 부소장이 함께 '패널 토의'를 했으며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강연 내용은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 제도 차이와 통계 정보 등에 대해 해설하는 내용이었습니 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JETRO 서울사무소에서 실시한 조사 사업 '한국의 지식재산권 동향·활용 조사 보고서(2025년 3월)'에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JETRO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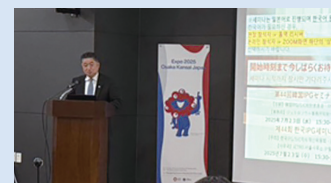
JETRO 웹사이트 > 국가·지역별로 보기 > 아시아 > 한국 >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 > 조사보고서 > 한국 지식재산 제도 등
'한국의 지식재산권 동향·활용 조사 보고서 (2025년 3월)'

https://www.jetro.go.jp/ext_images/world/asia/kr/ip/tab2/20250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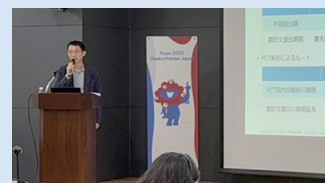
IPG



폐회 인사 장면



김동국 IIPTI 국제교육과장 인사 장면



천성진 대표 변리사 강연 장면



구기완 대표변리사 강연 장면

KOREA IP NEWS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 한국특허청 (2025.5.27.)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25.4.7. 신설)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서울 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25.5월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짜통 OUT, 정품 OK!' 캠페인(5.15.~16, 26)을 실시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②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 한국특허청 (2025.7.22.)

오는 22일(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 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③ 특허청(기술경찰), 이차전지기술 해외유출 시도한 前 대기업 직원 총 3명 기소

| 한국특허청 (2025.7.28.)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빼돌린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 등 총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해기업은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기업은 보안위반 사고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대응해 왔으며,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가 초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확한 첩보,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과 수사·법률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긴밀한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확인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④ 특허청,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 한국특허청 (2025.7.30.)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 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접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 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30.(수),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특허청이 모니터링으로 적발하여 예방한 위조상품 피해 추정액은 약 10조원('24)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PG

File No.201

한국 특허청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빵차' 전국 투어 행사를 개최



2025년은 한국에서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촉우기'를 발명한 날(5월 19일)을 기념하여 제정되어 이번에 한국 특허청과 성심당의 협업 행사로 '발명의 날 60주년 빵차' 전국 투어가 개최되었습니다.

1. 성심당과 지식재산

이번에 한국 특허청과 협업한 '성심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입니다. 성심당은 빵에 관한 지식재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는 독자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의 제조 방법을 등록한 인기메뉴 튀김소보로: 특허 제10-1104547호, 부추빵: 특허 제10-1333291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은 43건에 달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등록 상표 예시 (출처: KIPRIS) 상표 등록 번호 41-0286039-0000

이번 행사에서는 지식재산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빵과 같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성심당 빵을 통해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2. 빵차 전국 투어

성심당 빵차가 한국 각 지역을 돌며 방문자들에게 성심당의 맛있는 빵과 '발명의 날'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소책자의 QR코드를 통해 현장참여 인증사진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퀴즈 및 경품 추첨도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 행사는 4월 30일(수)에 한국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서울 중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2차는 5월 7일(수)에 동성28아트스퀘어(대구시 중구), 3차는 5월 13일(화)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광주시 북구), 마지막은 5월 14일(수)에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배포한 소책자와 빵



서울 행사장과 빵차 모습

서울 행사에 참석한 한국 특허청 정대순 대변인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성심당처럼 일상 속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명품 특허'로 이어지는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국민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지식재산의 획기적인 기획이 성공하여 100주년 등향후 기념 행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3. 마무리



해당 사진은 한국 특허청이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시한 '촉우기'입니다. 이 발명은 발명 당시의 기상 관측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명이란 우리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개발되는 것입니다. 발명은 최첨단 과학기술 제품 외에 일상 속에도 많이 존재하며 풍요로운 삶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통해 사회가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 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202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액



한국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미보유 기업 대비 20.9% 높다'는 조사 결과를 2025년 5월 21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재산권과 매출액의 상관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액 성과 분석'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의뢰로 진행된 것이며 한국에서 최초로 지식재산권의 빅데이터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 기업 228,617개 회사의 경영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조합하여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1건 이상 보유하는 기업은 보유하지 않은 기업보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하는 지재권 종류나 건수, 해외 진출 유무에 따라라도 매출액에 큰 차이가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여러 권리가 포함되지만 보유하는 권리 종류와 건수, 해외진출 유무에 따라라도 매출액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허권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처럼 한 종류만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8.9%로 높고 두 종류를 보유하는 기업은 27.1%, 특허, 상표, 디자인권의 세 종류를 모두 보유하는 기업은 32.7%로 매출액 증가폭이 큼니다.

또한 보유하는 권리 건수와의 관계도 발표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하는 기업은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5.4% 높은 반면, 2건에서 19건을 보유하는 기업은 24.1%, 100건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은 50.3%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해외의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에 따라라도 차이가 보였으며, 지식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한국 국내에서만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20.3% 높은 반면, 외국에서도 출원을 한 기업은 27.3% 높다는 결과에서 해외의 지재권 보유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리게 되며, 그 결과로 매출액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과 역동 경제

과거에도 한국 특허청이 방금 소개한 조사보고와 유사한 지식재산권과 비즈니스의 상관관계를 다룬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에 보고된 '한국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역동 경제 구현 전략'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소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 활동을 추진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과 역동경제]

- 산업재산권 보유규모 1% 증가 시 매출액 0.35% 상승('23년 지식재산연구원)
-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은 미보유 기업 대비 매출이 7.2%, 수출이 39.6% 증가('23년 지식재산연구원)
- 특허출원한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이 6.4배 증가('23년, 유럽 특허청)
- 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보다 특허증가가 유의한 양(+)의 영향('20년, 통상정보학회)

3. 중견기업에서도 중요한 요소

2025년 3월에 발표된 한국 특허청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중견기업 수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나, 수출의 18%, 매출의 15%, 고용의 14%를 차지하고,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는 평균 51.5건 (특허·실용신안 20.7건, 상표 26.6건, 디자인 4.2건) ('23년 기준)'입니다. 중견기업에 있어서는 소개한 바와 같이 유리한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단지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특허청은 '명품특허'라고 불리는 강력한 지식재산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이처럼 지식재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여러 종류를 보유하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유하는 것이 매출 상승 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매출액이 높은 기업은 지식재산을 여러 개 보유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단순히 권리를 보유하는 것보다 어떻게 권리를 활용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 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205

한국이 GII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



한국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인재 육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재산 분야의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글로벌 혁신 지수 (GII)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GII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으나 올해는 아시아 국가 중 1위, 종합 4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결과는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아시아 지역 2위, 종합 5위)에 이어 중국(아시아 지역 3위, 종합 10위), 일본(아시아 지역 4위, 종합 12위) 순입니다. WIPO 발표에 따르면 GII는 1.제도, 2.인적자본·연구, 3.인프라, 4.시장 고도화, 5.기업 고도화 등 투입 부문 5개, 1.지식·기술 산출, 2.창의적 산출 등 산출 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자부문에서 4위, 산출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적 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78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되었으며, GDP 대비 국제특허(PCT)와 디자인 출원도 세계 3위의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GII 결과를 통해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은 인재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입각한 높은 능력을 가진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성공했다는 점과 정보통신 기술 등에 관한 적극적인 투자가 평가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IP5로서 세계적인 존재감을 가지는 한국 지식재산에 높은 평가에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산권 출원의 여성 비율

GII를 통해 한국은 현재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여성에 의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이 9월 15일에 발표한 '디자인권 출원자 3명 중 1명은 여성!'라는 보도자료에서는 국내 디자인권 출원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디자인권 출원 비율은 1999년 전체의 7.6%에 불과했습니다만 2024년 35.4%로 급증했고,

2025년 상반기 역시 동일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25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같은 기간 특허·실용신안의 여성 출원 비중도 5.2%에서 20.7%로 증가했고, 상표에서도 14.3%에서 38.0%로 늘었습니다. 이 결과는 같은 인재가 계속해서 출원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연차 경과에 따라 출원하고 있는 층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인재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보도자료에서는 30대 이하의 여성 디자인권 출원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 건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디자인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현재보다 산업재산권 창출부터 출원까지의 활동이 적었던 여성 층을 포함한 폭넓은 인재 육성을 해왔던 것이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 전체의 창출로 이어져서 GII에 기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본의 목표

6월 3일, 일본에서는 지적재산전략본부로부터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5'가 발표되었고, 다음과 같은 GII의 목표가 책정되었습니다.

'지재·무형 자산 투자 촉진과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 이용·활용 추진 등을 통해 지적 창조사이클을 가속화함으로써 2035년까지 WIPO의 '글로벌 혁신 지수' 상위 4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본의 사상 최고 순위인 4위라는 결과를 웃돌겠다는 취지의 목표입니다. GII에서 상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한 한국의 활동 내용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아 지식재산 분야의 인재 육성에 주력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기존 지식재산 창출 층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층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시도하는 것이 향후 GII의 높은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4. 마무리

과거보다 환경과 트렌드 변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출에 있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한 층에서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도 다양한 층에서 실시하는 것이 혁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츠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게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